

# 다시 시작한 마가

Mark Started Anew

사도행전 15:36-4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3월 10일 설교

<sup>36</sup>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sup>37</sup>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sup>38</sup>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sup>39</sup>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sup>40</sup>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sup>41</sup>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 함께 모인 곳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 지역 본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천국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기 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마 4:13). 그래서 성경은 가버나움을 본 동네. 곧 예수 “당신의 마을 (마 9:1)”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 형제의 집도 거기 있었습니다 (마 8:5-14; 막 1:21-29).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멀고 가까운 여러 마을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 6:17).

남쪽 유대 지역에서 전도하실 때는 따로 본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무신 기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나사로 집에 머무르거나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마 21:17; 막 11:11; 눅 21:37).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해 제자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어디라는 말은 없고 그냥 모이던 곳에 모였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 소식을 전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으니 어떤 정해진 장소가 있었고 그곳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막 16:9-13; 눅 24:9-10, 33; 요 20:1-2, 19, 26).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행 1:12-14). 모인 곳이 다락이라 했는데 당시 다락이라 하면 우리네 다락처럼 지붕 가까이 있는 좁고 낮은 공간이 아니라 그냥 집 이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리켜 “저희 유하는 다락”이라 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머물던 거처라는 말입니다. 전부터 본부로 삼은 곳이라는 말이지요. 모인 사람 수가 백이십이니까 아주 큰 집입니다.

## 마가 요한의 집

누구 집일까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부터 머물던 곳이니가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 있던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로나 예루살렘에는 본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일 곳이 많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모여 있던 그 장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사흘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집일 가능성이 가장 큼니다. 백스무 명이 모인 장소가 부활절 밤에 모였던 곳이고 그게 또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 집은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 제자들 몰래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마 26:18; 막 14:13-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눈에 띄지 않게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유월절 직전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람을 만나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으면 주인이 장소를 보여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눅 22:8-13). 그러니 주인하고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런 주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집이니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모이기 좋은 장소였겠지요.

성경은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 다락방 곧 이층 방은 마가요한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마가요한의 집! 지난 석 주 동안 제 설교에 매주 나온 곳입니다. 무슨 일로요?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철야기도를 했다 그랬지요? 그 때 기도회를 한 장소가 바로 마가요한의 집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했습니다 (행 12:12). 당시는 교회라 부를 건물이나 장소가 없어 가정에서 모였는데 마가요한의 집이 가장 컸기 때문에 거기서 모였던 것 같고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당연히 그 집으로 갔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여기서 가지셨을까? 초대 교회 전통이 아니어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활절 밤에 모였던 집, 백이 십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집이 이 집일까?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마가요한 또는 간단히 마가라 부르는 그 사람의 집입니다.

## 선교 중도 포기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미리 모아둔 양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과 바나바도 베드로를 살려 달라 한 그 기도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 마가요한의 집에는 갔을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니까 그리 가야 교인들을 구제하지요. 게다가 바나바는 마가요한의 사촌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의 일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 마가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시킬 일이 있었는지 데리고 온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한 얼마 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최초의 해외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두 사람은 마가도 선교 팀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역할이지요. 그렇게 세 사람이 최초의 해외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닷가로 나가 배를 타고 가까운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행 4:36). 섬을 두루 다니며 전도한 다음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남부로 갔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마가요한은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지 둘에 맞아 죽을 뻔 한 그런 일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조금 힘들다고 못 하겠다 하고 가 버렸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자라 고생을 못 해 봐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 두 사람의 싸움

그런데 그렇게 중도하차 한 걸로 끝이 나나 싶었던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요한 때문에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교회사에 길이 남은 싸움입니다. 요즘도 많이들 싸우지 않습니까? 목사파 장로파로 나뉘어 싸우고, 노회장 총회장이 못 되면 그거 하려고 싸우고 파를 갈라 나갑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싸움을 하면서도 다들 뭐라 합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도 싸웠는데 뭐.” 바울이나 바나바한테 배울 게 아흔아홉 가지고 배워선 안 될 게 이 한 가지인데 꼭 이 하나를 따라합니다.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지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왜 싸웠습니까? 첫 선교를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얼마 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첫 선교지를 다시 찾아가 교인들을 격려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팀을 짜면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마가요한이 이때쯤 다시 안디옥으로 와 있었던 모양인데,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고 바울은 안 된다 했습니다. 첫 선교 때 중도 포기해 버린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느냐 했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살리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 한 거고 바울은 개인의 기회보다 선교에 차질이 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럴 수 없다 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를 책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제 입장만 내세우고 물러설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판 싸우고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둘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지요. 두 사람을 따라하는 요즘 교인들도 잘못이지만 싸운 두 사람도 잘못입니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잘못된 싸움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갈라진 다음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 버렸습니다. 지난 번 첫 선교지가 구브로니까 계획대로 교인들을 돌아보러 갔을 수도 있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다 때려치우고 낙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가 버리고 바울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를 보충 대원으로 선발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 다음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구브로로 갔기 때문인지 바울과 실라는 처음 계획과 달리 새로운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 달라진 마가요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간 걸 계기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시작한 충성된 일꾼 바나바가 이후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따라갔던 마가요한은 나옵니다. 바울 및 베드로의 편지에 마가라는 이름으로 네 번 나옵니다. 아주 짝막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마가요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세 번 언급합니다. 첫 언급은 빌레몬서 24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일차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내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그대에게 문안한다 하고 썼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살피던 일꾼들 가운데 마가가 들었습니다. 마가는 못 데려간다고 우기던 게 십삼 년 전입니다. 그 동안 강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선교 사역이 힘들다고 도망갔던 친구가 지금은 이 먼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라 부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나 디모데에게 쓰던 호칭입니다. 마가가 이제는 그렇게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4:10입니다. 역시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서와 비슷한 시기에 쓴 편지로 여기서도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가리켜 “바나바의 사촌 마가”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 몇 년 전 일이지만 알 사람은 다 압니다. 나랑 대판 싸웠던 그 바나바의 사촌, 그 부끄러운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그 마가가 지금은 감옥에 있는 나를 돕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의 지난 잘못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동시에 전에 그랬던 마가가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 외에도 두 사람을 더 언급한 다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로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지요? 나를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었던 마가가 이제는 나를 위로해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 한결같은 마가

마가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에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에도 나옵니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얼른 자기에게로 오라 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였습니다. 마가가 지금 에베소 아니면 다른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전에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제 일이 바빠 떠났는데 마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전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낼 때 마가도 함께 보내면서 마가를 잘 영접하라고 따로 부탁까지 했습니다 (골 4:10). 마가는 골로새를 거쳐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까지 혼자 선교여행을 한 셈입니다. 전에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다음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 때 바울이 반대해 같이 못 갔던 지역을 이제 마가요한 혼자 다니며 선교하게 만든 셈이지요.

마가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러 다른 곳으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누가 한 사람만 남고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더욱 필요했겠지요? 바울은 덧붙였습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방해가 된다 생각했던 마가가 이제는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꼭 데리고 와야 할 인물, 이제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떠난 사람 가운데 데마는 아예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 버렸습니다. 마가와 함께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며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제 싫어 포기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름까지 밝히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했겠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로 함께 떠났다가 하기 싫다며 중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변함이 없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마음을 잡고 바울과 동역하기로 하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베드로와 함께

바울과 함께 참 수고를 많이 한 마가였지만 바울 한 사람하고만 일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도 로마의 다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에 보면 마가는 감옥에 있던 베드로도 돌봤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는데 그만큼 가깝고 또 신앙을 전수해 준 그런 사이라는 말이겠지요.

로마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돌본 사람은 실라와 마가 두 사람입니다. 실라는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운 다음 동역자로 택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일꾼입니다. 베드로하고도 당연히 잘 알던 사이지요.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가네 집입니다. 거기가 교회였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 마가요한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활동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나이야 어렸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란 교회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니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거지요. 첫 선교사로 출발했다가 잠시 곁길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일하다가 중도 이탈을 했으니 이유가 뭐든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지도자 두 사람이 크게 싸우고, 그 싸움이 오늘까지 수많은 싸움을 낳았으니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 한 번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온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다는 것과,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은 그 믿음입니다. 믿음도 좋고 재력도 있던 어머니 덕에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도 보고 야고보의 순교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시더라 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믿음이 좋아 재산까지 다 바친 사촌 바나바 덕분에 안디옥까지 가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선교사로 직접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한 번 잘못이 있는 다음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 복음서 기록

마가가 바울하고 동역한 것은 한 때 포기했던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가가 베드로 하고 동역한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적은 성경이 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누가 썼다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이 복음서를 마가가 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전해 들어 영감 받은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서도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니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 복음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이 배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듣고 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주님을 직접 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사도들이 처음 모여 기도하던 집이 마가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확실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집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밤 제자들이 모였던 그 집이었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바로 그 집이었다면, 마가요한은 어린 나이에 주 예수의 모습도 직접 뵈고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드러나지 않은 증인이 됩니다.

## 마가가 받은 은혜

성경을 보면 마가요한의 생애 가운데 눈에 띄는 건 한 번 저지른 그 잘못입니다. 선교하다 중도 탈락하고 그래서 교회를 갈라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마가요한의 참 모습은 숨어 있습니다. 저지른 죄 때문인지 좋은 모습도 감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슬쩍 감추어진 그의 생애, 한 때의 잘못을 이겨낸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서도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바나바의 인내가 중요했겠지요. 처음 싫다 했지만 중심을 알고 난 다음 받아주고 동역자로 삼은 바울의 태도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함께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겠지요. 이들 말고도 많은 사람을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받은 말씀의 은혜도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한 번 포기한 뒤 얼마나 오래 곁길로 갔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시기를 따져보면 길어야 한 두 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이탈 이후에는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한 번 잘못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마가요한의 생애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잘못해야 용서도 받지요.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은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전체를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가 받은 은혜

마가를 보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때 주춧했지만 마가요한은 믿음의 저력이 있었습니다.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게 쌓이고 또 쌓여 믿음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결길로 갈 때도 있지요. 때로는 힘이 들어서, 때로는 불만이 생겨서, 때로는 다른 일이 바빠서, 손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도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오늘 마가요한에게 배우면서, 일탈의 기간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데마처럼 잘 가다가 마지막에 세상으로 가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마가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나도 힘든데 한 번 포기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혹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미 결길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 더 빛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얼른 접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새로운 전기를 열른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믿음의 길은 함께 가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도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받아준 바울이 있었기에 마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혹 누가 낙심한 듯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시작하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언제고 어느 때고 양팔 벌려 환영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이 나그네 길을 잘 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의 그 나라에 함께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